

# 충성대신보

제 196호

2022년 9월 5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02 학교소식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상·우수상 수상  
 03 학교소식 58기 4학년, 해사·공사와 합동 교육 시행  
 04 학교소식 무대위 속 담글질 '하계군사훈련'  
 06 생도광장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교류 방문 소감

08 생도광장 59기의 첫 지휘근무  
 10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킬링  
 14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방성대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논설위원 황수현 최재호 민병후 정병삼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김수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196호 사진제공 및 편집 : 상병 이청하, 일병 김세중, 김영우, 송동익, 설영환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대상·우수상 수상 쾌거

## 유엔의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인식, 외교교섭 과정 간접 체험

지난 7월 12~15일까지 한동대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생도 4개 팀(14명)이 참여해 2개 팀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30개 대학, 240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유엔의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교섭 과정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 대상을 수상한 조혜진(좌), 방영은(우) 생도와 지도교수 장진아 소령(중)의 기념촬영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분쟁 사태와 유엔의 기여 강화(1위원회), ▶COVID-19 상황 하 SDG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 방안(2위원회),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국제 노력(3위원회)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과 지도교수 기념촬영

3위원회에서 방영은, 조혜진(58기, 4학년) 생도는 의제를 두고 토론과 협상을 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고, 2위원회에서는 박광민, 지윤아(58기, 4학년) 생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약 두 달간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국가 및 의제 연구, 유엔회의 의사결정 구조, 기조연설문 작성, 연설문 낭독, 회의진행 절차 숙달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시행했다. 대회를 준비한 문은석 소령(교학과장)은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매우 뜻깊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생도들이 자기 발전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위 박광선

##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 선발

### 60기 정시/61기 예비생도 선발



▲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면접)

학교는 지난 6월 17일, 1차 서류전형 발표에 이어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2023년에 입교할 60기 정시생도와 2024년에 입교할 61기 예비생도를 선발했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대학성적+수능성적 또는 대학성적+고교내신], 2차 선발고사[영어, 간부 선발 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가], 3차 적성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으로 평가를 진

행했다. 올해부터는 선발 배점을 조정하고 체력측정이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로 대체되었으며, 가산점 적용 대상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입시제도를 적용하여 우수한 인원들을 뽑기 위해 학교의 전역량을 집중했다.

김호길 대령(평가관리실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장교를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을 토대로 선발을 진행하였다”며 “지적능력과 더불어 장교다운 올바른 인성과 품행을 지니고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과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선발 과정의 중점을 피력했다. 한편, 3차에 걸친 선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550명이며, 이 중 여자 생도는 55명이다. 최종합격자는 60기 정시생도 10월 28일, 61기 예비생도 10월 14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면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주관 기본연구사업 과제 선정

### 지진 피해 최소화 내진설계기술 / 비즈니스 자동차 모델 연구

### 미래 軍 환경리더 양성 아카데미



▲ 손창호 교수(좌)와 윤정원 교수(우)

학교는 지난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이공분야 기본연구사업’에서 2개 과제가 선정돼 2025년 2월까지 총 연구비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기본연구사업은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해 연구기반 확대와 국가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자유 공모로 진행되었고, 과제별 연구 기간은 1~3년으로 수학, 건설공학, ICT 융합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다중계층데이터의 지능적 분석 및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발굴을 위한 통합 자동화 모델 개발(국방시스템과학

과 손창호 교수), ‘자기부상 면전 장치를 통한 말뚝 기초의 내진설계기술 개발 및 내진 성능 평가(건설공학과 윤정원 교수)’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신의 연구 분야다. 손창호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즈니스 자동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와 현실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7월 27일, 군환경연구소 심재춘 교수는 ‘미래 軍 환경리더 양성 아카데미’ 연구과제가 선정돼 올해 12월 9일까지 총연구비 6천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과 경험을 가진 그린(Green) 리더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대위 박광선



▲ 심재춘 교수

### 해사·공사와 합동 교육 시행

#### 타군 이해 합동성 강화

58기 4학년 생도 523명이 2개의 팀으로 나누어 6월 28일, 30일 이틀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생도 합동 교육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각각 진행했다.

국방부는 생도 시절부터 타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합동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는 2019년 시범운영에 이어 2020년부터 정식 합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편·입학 사관학교인 학교의 학년 체계가 다른 사관학교와 다르다는 특징을

고려해 별도의 합동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생도들은 교내에서 해·공군의 임무와 역할, 합동작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 또, 해·공군사관학교 교내 견학, 다양한 체험 활동, 해·공군 사관생도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58기 김수현 생도는 “타군을 이해하고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된 해·공사 생도와도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모의비행훈련 체험(공군사관학교)



▲ 생도 친선의 밤 행사(해군사관학교)

### 영천시 평생학습관 업무협약 체결

8월 9일 학교와 영천시가 평생교육 시설 사용 협력,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시민의 특기와 적영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주무관 길진규

시절 사용 협력,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와 영천시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협력, 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교육



▲ 학교장(소장방상대)과 영천시장(최기문)의 기념촬영

### 육군 군가합창대회 우수 상금 100만 원,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쾌척



▲ 위국헌신전우사랑기금 기부금 전달행사 후 기념촬영

가창팀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군가합창대회 간 총괄팀장 역할을 했던 경일구 중령(진)은 “우수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것과 더불어 ‘기부’라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하는 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을 다하신 선배 전우님들과 지금

6월 육군본부에서 주관한 제9회 육군 군가합창대회 결선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관생도들이 상금 100만 원을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하여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관생도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국헌신 군인분들의 사명을 다한 장병들과 선배 전우들을 위해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하는 방안을 생각하였고, 7월 14일 인사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 전달행사에 대표자로 2중육대장 경일구 중령(진), 58기 이성혁, 59기 신호안 생도가 참석하여 육군3사관학교 군가

도 전·후방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전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기부에 참여한 58기 이성혁 생도는 “자발적인 기부분화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관생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육군의 초석이 될 예비장교들이 선배 전우를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화랑의 후에 사관생도, 화랑 정신을 계승하다!

####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화랑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학교는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하계군사훈련 기간 중 1일씩 총 4회에 걸쳐 59기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화랑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화랑 리더십 교육은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 화랑도 정신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정신을 사관생도들의 리더십과 인성, 품성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로그를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경건해졌다”며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갖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다도 교육 체험

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리더십/인성교육실장 남기웅 서기관은 “화랑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사관생도들에게 화랑의 후예다운 인·품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더 다양하고 생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대원과 소통·공감하고 존중·배려할 줄 아는 정예장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 인성 및 품성 함양교육

올해 화랑 리더십 교육은 신라 화랑의 수련장 가운데 하나였던 팔공산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인성 및 품성 함양교육, 걷기·명상 체험, 다도 체험, 웃음 치료 등을 통해 장차 군과 사회를 이끌어갈 사관생도들의 내면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화랑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59기 정인상 생도는 “화랑도와 관련된 교육을 듣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



▲ 화랑 리더십교육 간 생도 기념촬영

### 7, 8월 학교 간부 전·출입자 명단

####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교수부 심상훈
- 교수부 김태겸
- 교수부 박찬용
- 학교본부 박귀희
- 생도대 이동호
- 군무지원단 김화경
- 군무지원단 장문성
- 군무지원단 이현희
- 군무지원단 박성관
- 행정부 송승현
- 학교본부 박지혜
- 행정부 배인영
- 리더십/인성교육실 정성환
- 리더십/인성교육실 이주영
- 생도대 김소라
- 생도대 남태정
- 생도대 심우연
- 생도대 최건하
- 군무지원단 서영웅

####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생도대 김대영 → 수도군단
- 군무지원단 김경철 → 국군지단
- 군무지원단 라서연 → 5군단
- 학교본부 김윤하 → 정보본부
- 교수부 이세훈 → 인사사
- 학교본부 최임형 → 2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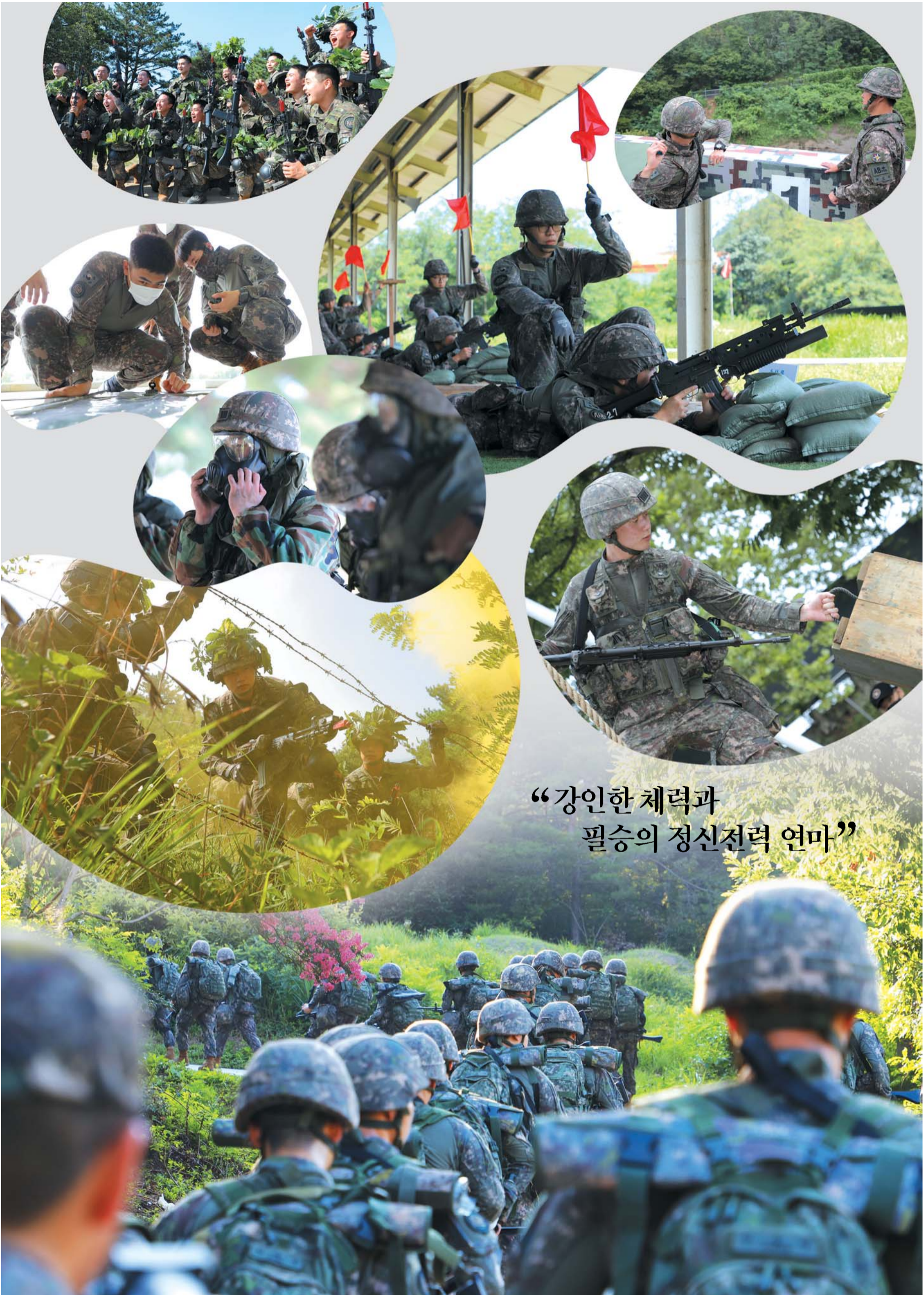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땀금질 '하계군사훈련'

한여름의 땀약별이 내리쬐던 지난 7월 초, 사관생도들은 일반학 수업을 뒤로하고 7주간의 하계군사훈련에 전격 돌입하였다.

하계군사훈련은 사관생도들이 장차 군사전문가로서의 기본소양과 기본전투기술, 전투지휘능력, 교육 훈련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또한, 이전에 부임해서도 전천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대장을 길러내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적시적인 판단과 전투지휘를 통해 부하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부여된 전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주무관 길진규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전력 연마”

#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 동기 편제

하계군사훈련 간 59기들은 처음으로 동기로만 편성된 중대를 이루게 되었다. 처음으로 직책을 수행하게 된 59기들은 혼란에 빠졌고, 선배 생도의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동기들만 사용하기에 분위기가 자유로워져있지만, 그렇다고 통제도 애매한 상황에 대해 걱정의 말도 많이 나왔었다. 하계군사훈련이 끝난 지금 22·2차 일반학기에서도 동기로만 중대를 형성한다는 말에 59기들 사이에서 선배 생도들과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인원들과 동기만 사는 게 좋다는 인원들로 나뉘고 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형태든 경험해보라는 학교장님의 뜻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

## 📢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 더위가 머리와 온몸을 감싸는 8월 초 단독군장으로 무장한 우리는 효사로를 타고서 각개전투 교장으로 향한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와 100%를 기록한 습도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가득하고, 젖은 전투복에는 흙이 잔뜩 배어 흙 비린내와 땀 냄새로 진동을 한다. 온몸이 지치고 정신은 피곤함에 찌들었지만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그 구호..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동 간에 몸에 각인된 듯 나오는 구호.. 잊을 수 없는 각개전투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 📢 CS 가스의 공포

화생방 훈련을 받던 하계훈련의 한때, 방호복을 모두 착용하고 방독면까지 쓴 생도들은 가스실로 들어간다

A생도 : 뭐야 가스 약한데? 나 면역이라도 있나?  
B생도 : 그러니까ㅋㅋㅋ 엄청 눈물도 난다던데 하나도 안 맵네

그런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용사생활을 하고 입교한 생도는 가스를 직접 마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조언을 해준다. 잠시 후, CS 가스가 눈과 코에 묻어나며 진정한 무서움을 알게 된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코가 너무 매워 물을 당장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다 생각하는 생도들

A생도 : 물!!! 물!!! 물 좀 빨리 뿌려줘  
B생도 : 눈이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그 외중에 방독면을 쓰지 않고 가스를 마시고 싶다고 자원한 생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용사 생활을 하고 온 생도는 생각한다  
'들어 가면 지옥이야.'

그 뒤로도 가스실 앞에서는 가스를 체험한 생도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름의 모습이었다.

## 📢 정지! 손들어!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계를 배우며 인원 수하 방법을 배운 생도들은 오늘도 열심히 실생활에 응용하며 자신만의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어두워진 총용관의 밤, 불침번을 서고 있는 인원은 화장실을 가는 인원에게 말한다.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문어! 인원 수하 절차를 통해 학습과 불침번 임무 수행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생도는 잠시 후 뒤를 조심하지 못했다

"정지! 손들어! 무기 버리고 옆으로 3보 이동"

누군지 모를 목소리에 불침번 생도는 수하 절차에 따르는데 절차 도중 뒤를 돌아 확인한 그의 정체는 조금 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신이 수하 절차를 실시한 생도였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 및 감시 방법을 실시하며 열심히 학습을 이어나가는 총용관의 밤은 생도들의 열의로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교류 방문 소감

# “알은 세계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기존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속 구절이다. 이번 하계군사훈련은 타 사관학교의 방문과 친선 교류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만큼 군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넓혔으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비록 하루, 그것도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반나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특별한 무언가를 느낀 우리가 그 특별함을 글로써 남겨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 해군사관학교 / 58기 기자생도 박재현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하게 자라지는 않았어도, 나는 화초와 다를 바 없이 바깥의 세상을 잘 몰랐다. 해군사관학교 방문은 어린 새인 나에게 동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펼치는 첫 날갯짓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건 시원한 파도 소리와 황량하다고 느껴진 아스팔트다. 그 위에 당당히 서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약한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문장을 연상케 했다. 당당히 그곳에 입성한 나는 그들이 하는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IBS로 바다를 건너고, 맑은 물로 인해 원래 높이보다 훨씬 높아 보여 공포심을 이겨내야 했던 5M다이빙까지. 이후에는 해사 생도들과 친선의 밤을 기졌다. 서로의 훈련을 비교하고, 자랑하기도 하며 서로의 병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별을 이쉬워하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 SNS를 공유하며 연락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 공군사관학교 / 58기 기자생도 원동규

공군사관학교는 내 생의 첫 타 사관학교 방문이었다. 잠든 나를 태운 버스에서 내려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은 “리더(Reader)가 아닌 사람은 리더(Leader)가 될 수 없다.”라고 적힌 도서판이었다. 그러한 문구를 보자니 멋진 말에 감탄을 뱉은 한편, 그들의 학구열 또한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번 하계군사훈련 간 생도들의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서로다를 수 있다. 모두가 느끼는 성취감이다를 것이니 말이다. 나는 가장 깊게 남아 우리에게 도움이 될 활동은 타 사관학교 생도들과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군을 이끌어 갈 우리의, 세상을 넓히게 된 교류는 앞으로도 길이길이 뿌리내리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팀방은 한국의 패키지여행과 같이 빠르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의 훈련 장비를 둘러보고, 훈련 체험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나에게 뜻깊게 다가온 것은 단연 생도들끼리의 교류였다. 본인만의 파트너 생도가 있다는 말에 ‘처음 만나고 짧은 만남일 텐데 성공적인 교류가 될까?’ 하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파트너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 해주었고 나 또한 그를 따라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때 ‘출발 전 훈련관님들이 우리에게 말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이런 것을 말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그와 연락하며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앞으로 후배들이 여건이 안되어 타 사관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생도들끼리의 교류는 59기, 60기를 넘어 향후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58기 공수훈련

#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860기를 믿노라!

58기 국장생도 김수현 / 58기 기자생도 박건희, 이현우

860기! 예 860기!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860기를 믿노라!

무더운 8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58기는 특수전학교로 왔다. 생도대를 떠나서 처음으로 길게 머무는 낯선 공간, 첫날 밤은 모든 것이 어색했으며, 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다. 마치 충성기초훈련을 앞둔 기훈생도처럼 마음이 떨렸다. 공수훈련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체력측정이 바로 시작되었고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OT가 시작되었다. 담임 교관님과 교육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교장으로 나가 하네스 착용법과 공수 체조를 배웠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점차 익숙해져 가는 우리를 볼 수 있었다. 기본 훈련을 마치고 입교식을 통해 정식으로 860기 교육생이 되었다. 경례도 '충성'에서 '단결'로, 차렷 자세도 앞꿈치를 붙여야 했다. 1년 반 동안 몸에 익은 자세와 구호를 한순간에 바꾸기 어려웠지만, 혹독한 체력단련을 하고 나면 금방 몸에 익었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공수기본 지상기초교육은 착지, 공중 동작, 모형문으로 이루어진다. 자격 강하를 하기 위한 기초교육으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었다.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3보 이상 뒹굴음 이동과 빗물과 땀에 젖어 늘 축축한 전투화였다. 체력이 많이 늘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처럼 교관님들은 안 되면 되게 만들었다. 매일 악을 지르며 달리다 보니 다들 하루하루 정신력이 강해져 갔다.

이 글을 적는 지금은 강하하기 전이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 높은 상공에서 강하를 위한 대담함도 길러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매우 감사하고 값진 일이다. 우리 58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고 곧 하늘을 품게 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가슴에 공수 마크를 부착하는 그날까지. 앞꿈치 무릎!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자** 공수훈련은 여태까지 받은 군사훈련 중 가장 강도 높은 체력단련과 굳기, 정신력을 요구했다. 그렇기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교관님들의 호통과 동기들의 응원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관님들도 동기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화내지 말자** 덥고 습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실시간으로 피부가 타는 것이 느껴진다. 반복구호를 들었을 땀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다. 생도들도 지치니 서로 예민해져 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임관을 앞둔 동기 아닝가? PT 체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을 때 파이팅을 외치던 동기 목소리가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자부심을 가지자** 공수훈련은 전군 중 1%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훈련을 내가 받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자.

이곳 공수 교육대를 거친 자여, 조국은 당신을 믿노라. 아자! 아자! 파이팅!

59기 병영체험

# 용사들과 동고동락한 병영체험

59기 기자생도 정부민, 지혜연, 오찬울

59기 사관생도들에게 병영체험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체험이었다. 58기가 병영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아전 실습을 59기 사관생도들이 받게 되었다. 총 5일간 진행되었던 병영체험은 여러 추억을 남겼다. 그중에서 용사들과 함께한 59기 생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보자.

### 제17보병사단 번개 부대 체험

**A 생도** 이번 체험에서 전투준비태세, 편제 회기, 음어 해역, 전투 부상자 처치, 화생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용사들과 함께 체험했다. 하계군사훈련 기간의 훈련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B 생도** 병영체험 전, 아전을 처음 경험해 본다는 기대와 4박 5일 동안 처음 마주하는 용사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걱정이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된 용사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보며 사관학 교에선 경험할 수 없던 용사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있었다.

**C 생도** 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는 나와는 달리 용사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타의적으로 군에 발을 디딘 것이기에, 미래 소대장이 되었을 시 나의관점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휘관이 되어야겠다고 확신이 생겼다.

이처럼 생도들은 용사들과 함께 실제 아전 경험을 하며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를 깨닫게 되었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점은 지금 병영체험이 임관 이후 아전 생활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에 온 용사들의 노고와 아전 생활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배우면서 한층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용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휘관이 그들이 병영 체험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생도들은 앞으로 일반학, 군사학, 체력평가 등 생도들이 갖춰야 할 종합 능력을 키워 미래 아전에서 필요한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병영체험을 통해 59기 사관생도들은 아전에 나가기 전, 생도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영체험은 앞으로 생도들의 정신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59기의 첫 지휘근무

무더운 하계군사훈련은 우리에게 강한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했다. 많은 훈련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관생도로서 더 나아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동기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한층더 성장할 수 있었고, 59기의 기억에는 행복한 기억이 가득하다.

이처럼 좋은 결실에는 우리 흑랑 59기 동기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준 지휘근무 생도들이 있었다.

입교 후, 59기들만의 첫 지휘근무제도.

이로써 생도들은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생도 등의 직책을 맡게 되었으며,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에 많은 실수와 어려운 통제에 적응하기 바빴다. 하지만 중대장 생도를 비롯한 중대본부 생도, 소대장 생도, 분대장 생도들은 끊임없는 소통으로 훈련 여건을 잘 조성해나가며 동기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했으며, 팔로워십을 기르는 기회가 되며 하계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59기 사관생도 김 대영, 이승엽



### 첫 지휘근무제를 수행한 생도들의 소감...

**A 생도**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동기들과 함께 하니 두려움과 어려움은 없었다.

**B 생도** 힘들 때 항상 생각했다. 이것도 돌아보면 추억이리라.

**C 생도** 무더운 여름에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기들과 함께라서 극복할 수 있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D 생도** 아무리 뜨거운 날씨도 나의 하계군사훈련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순 없었다. 내 심장이 8000도이기에..

**E 생도** 59기들의 뜨거웠던 첫 하계군사훈련. 누군기에게 즐거웠던 추억, 누군기에게 힘들었던 추억, 누군기에게 성장의 기회. 각자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느꼈지만 우린 한가지 지부할 수 있다. 그 기억과 감성 추억 속에서는 흑랑 59기가 항상 곁에 존재했다는 걸.

**F 생도**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길 고생 많이 할 것이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막상 해보니 쉽네?

**G 생도** 처음 받아보는 훈련 들에 걱정이 많았지만 "동기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하계군사훈련이었다.

**H 생도** 선배님들 품에서 벗어나 59기들의 첫 뜨거운 하계군사훈련의 기억. 잊지 못할 것이다.



## 칼럼 I

의미와 관계,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힘

중령 정병삼  
인문학처장 심리학 교수

**여름보다** 뜨거운 생도들의 합성 속에 전투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다. 피서지가 아닌 훈련장에서 온몸으로 인고의 담금질을 견뎌내는 생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차마 숨길 수가 없다.

‘무엇으로 제자들의 가슴을 적셔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의미’라는 말을 떠올리게 됐다. “의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고, 관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라는 문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치료의 핵심원리이다. 의미치료자들이 볼 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물리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미치료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1905-1997)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심리치료자로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지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차례로 잃는 비참한 경험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수용소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량의 음식마저 기꺼이 양보하는 수용지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본질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극한의 고통은 한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삶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인간에게 현실의 고통은 더는 걸림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 고통은 오히려 그를 발전시키는 에너지원이 된다. 따라서 의미치료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

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이루어 나갈 좋은 인간관계라고 가르친다.

가끔 어두운 얼굴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생도들이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때로는 중도 포기를 생각한다.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고민의 본질은 ‘생도 생활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로 귀결된다.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생도에게 충성대에서의 교육과 훈련, 생도 생활은 그저 힘에 겨운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자문하고, 그 답을 찾은 생도에게 충성대의 모든 경험은 놀라운 성장의 에너지가 된다. 어찌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충성대를 아우슈비츠와 비교할 수 있으리라는 생도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주관적 고통은 그만큼일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치열한 성찰 끝에 남겨진 삶의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친구이다.

생도들이여,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폭염 속에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수통을 양보하는 동기생이 있는가? 그에게 다가가라. 함께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라.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동기가 되어보라.

**그렇다면 2022년의 하계군사훈련은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

## 칼럼 II

두려움 없는  
생도들을 위해

중령 이정훈  
인문학처 심리학 교수

**최근 우주의** 총천연색 사진을 인류 최초로 선보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중 필자가 주목한 것은 그 아름다운 우주의 영상이나 최첨단 허블망원경보다도 우주 프로젝트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한 흑인에 대한 사연이었다.

담배 소작농 집안 출신으로 해당 분야 과학자도 아닌 프로그램 디렉터인 그레고리 로빈슨(62)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가 한 역할은 조직의 침묵을 극복하고 소통하게 만들어 그동안 금기시했던 선배·동료 과학자에 대한 격의 없는 질문과 반론제시 등의 과격을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이었다. 덕분에 진전이 없고 암울한 전망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이처럼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조직 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 베스트셀러가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종신교수이자 경영학자인 에이미 에드먼슨이 쓴 ‘두려움 없는 조직(The Fearless Organization)’이라는 책이다. 내용 중에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이란 용어가 나온다. 이는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조직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의 침묵이 조직의 성과를 갉아먹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충만한 조직만이 조직의 학습, 혁신, 성장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NASA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기여한 그레고리 로빈슨은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을지 모른다.

이처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조직 분위기는 조직의 문제를 무기력하게 두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두려움 없고 거침 없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하

고 해결해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창조적 파괴를 거듭한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되지 않은 조직은 서로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분위기 탓에 의견제시를 주저하고 학습된 무기력이 일상화되어 침묵함으로써 문제 해결은커녕 정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된 분위기는 우리 생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생도들이 학교의 주인공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존중받으며 심리적 안정감 속에 두려움 없이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소통하는 풍토에서 양성된다면, 자신감 획득과 자존감이 높아짐은 물론 험난한 야전에서 도저히 당차고 두려움 없는 지휘자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지휘하게 될 야전 각지의 소대 곳곳에도 그들이 존중받았던 것처럼 부하들을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주고 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리더십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 생도들이 어느새 하계군사훈련으로 담금질 되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제 교수로서 두려움 없는 그들의 거침없는 질문과 궁금증에 답할 차례이다.

두려움 없는 생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이 마주할 우리 육군 구석구석이 바뀌고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오늘따라 퇴근길 문무관(文武館) 벽의 대형 문구가 우리 생도들 보란 듯이 더욱 크게 보인다.

**“질문하라! 너를 둘러싼 세계에 ‘왜’라고 물어보라!”**

저명인사칼럼 I

## 군인의 역할과 안보의 미래



이만열

Emanuel Pastreich 아시아인스티튜드 이사장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나라를 지키는 그들의 용맹성을 칭송하는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군인들에게 그러한 칭송의 말들은 오히려 빈말 같아 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군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꾸미지 않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군인들의 헌신과 의무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 표현은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의 원천이 있다. 하나는 돈과 특권 그리고 인맥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렇나 권력은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힘의 원천이 있다. 바로 명령을 따르며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다. 이 힘의 원천은 군인들의 힘이다. 하지만 이러한 힘은 악용되기도 하여 옛날부터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인생경험이 많은 독자들에게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야만, 잔인, 탐욕 그리고 무관심은 늘 인간과 함께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군인들의 힘, 즉 용맹함은 신속한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군대의 축복받은 잠재력이다.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안보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나라의 크기를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현재를 이해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당장의 안보 위기

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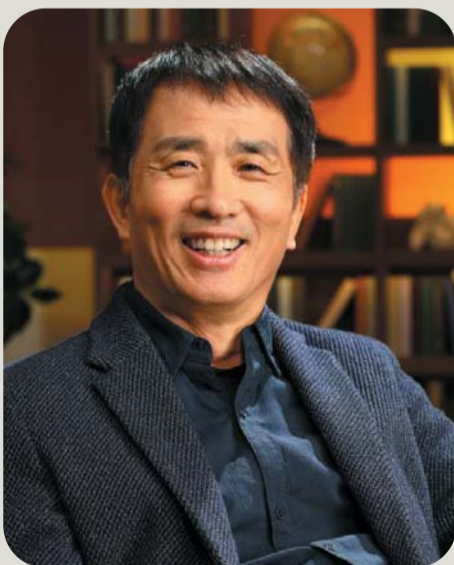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대비해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며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용맹한 힘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용맹함은 전장에서의 용맹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에 대한 새로운 혁신과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직 지난 전쟁의 경험에 근거해 다음 전쟁을 준비(preparing to fight the last war)하는 습관이 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장 중대하고 은밀한 위협은 주변 국가들이 아닌 태만(decadence)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숙고의 부재,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고 음주, 오락, 스포츠, 음식 등에 생각 없이 탐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군대 내부에서의 이러한 태만은 전쟁 준비의 모든 목적이 돈을 벌고 운동을 즐기며 부자, 권력과 어울리는 등 나태한 정신상태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전쟁사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영웅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다. 군대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전쟁들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미래의 전쟁에 결코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저명인사칼럼 II

## 공부란 무엇인가?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잘 살고** 싶나요?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싶나요?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싶나요?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멋진 배우자와 알콩달콩 살고 싶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싶나요? 그러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와 한자, 중국어는 기본입니다. 외국어가 안 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AI 관련된 일을 하고 싶나요? 그러나 수포자인가요? 말을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래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수학, 통계, 데이터의 축적·해석, 알고리즘 등등 모두 수학입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다고 하지만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알고리즘 설계자는 역대 연봉을 주고도 구하지 못합니다.

젊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그런 재능이나 노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운동은 과외 시간에 합니다. 그렇기에 운동을 그만뒀어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는 순간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세상에는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처럼 전해져 오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공부를 못하는 것이 행복이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중 하나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실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부를 안 해도 되는지, 공부를 못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공부가 필요 없다면 왜 재벌이나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왜 재벌들은 아이들을 다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쓸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돈마

저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 공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실성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실성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의 발현이자, 부모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고, 새롭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런 공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더 힘든 일, 더 고단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사업을 잘한다고요? 그야말로 0.1%의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보통사람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첫 과정은 억지로 하고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공부가 바로 그러합니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대부분 개롱남(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화학 분야 전문가, 자동차 분야 전문가, 시멘트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공부가 가장 쉽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확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공부를 편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를 찾아와주세요.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본단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의 모든 것』 <하>



소령 박동휘  
인문학처 군사사학과장

지난 호에 설명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양측 간의 '루스국 논쟁'과 '페레야슬라프 협약'과 관련된 역사적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서쪽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쪽은 러시아에 통치되어 국내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것도 전쟁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이렇듯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예견된 전쟁이었다.

##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 사건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으로 친서방과 친러시아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다. 양측 간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계기는 2004년 말의 대통령 선거였다. 대선은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친러 성향의 여당 후보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친서방 성향의 야당 후보 빅토르 유셴코 간의 맞대결이었다. 선거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 행정부와 유력한 후보 야누코비치 측이 상대 후보인 유셴코와 그의 지지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셴코를 지지하는 측은 투표 결과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11월 22일 유셴코 지지자는 야당을 상징하는 색인 오렌지색 옷을 입거나 오렌지색 목도리 두르기 또는 오렌지색 깃발 휘두르기 등을 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오렌지 혁명'이었고, 12월 26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야당의 유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으로 친서방 정책이 힘을 얻게 되었다. 반면에 역사적·지리적·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기간 야당 지도자 유셴코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출처: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why-ukrainians-are-ready-to-fight-for-their-democracy-175649>

오렌지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친서방과 친러 세력 간에 정권을 주고받고 있었다. 2010년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EU와의 경제협력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그가 2013년 11월 21일 급작스럽게 예정된 EU와의 경제협력 체결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우호 협력을 추진하

겠다고 발표하자 반러 성향의 시민들은 수도 키이우 중앙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급기야 2014년 2월 22일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키이우를 탈출했고, 시민들은 새로운 친서방 과도정권을 수립시켰다. 친서방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시민혁명인 '유로마이단' 사건이었다.

##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의 시작

유로마이단이라는 정치적 큰 변화는 60% 정도가 러시아계 주민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직접적인 위기를 촉발했다. 특히나 이곳은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적 문제가 있던 곳이었다. 1954년 소련 최고 권력자인 니키타 흐루쇼프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이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곳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우애를 기념하여 우크라이나에 넘겼기 때문이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 지도(상)와 부대마크 등 어떠한 표시도 없이 크림반도에 진입한 러시아 군인(하)  
출처: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6481423>

2014년 2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자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2월 28일경 부대 마크와 표식을 제거해 소속을 알 수 없는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반도로 진입해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다. 3월 1일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군대가 크림반도에 진입했고, 16일에 실시된 지역 내 주민 투표에서 찬성 측이 다수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동부에 거주하는 친러 분리주의자들도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도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했으나, 러시아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러시아로의 합병에 실패한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2014년 4월 초부터 돈바스 내의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건물들을 점거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때부터 러시아 측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돈바스 내의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돈바

스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현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합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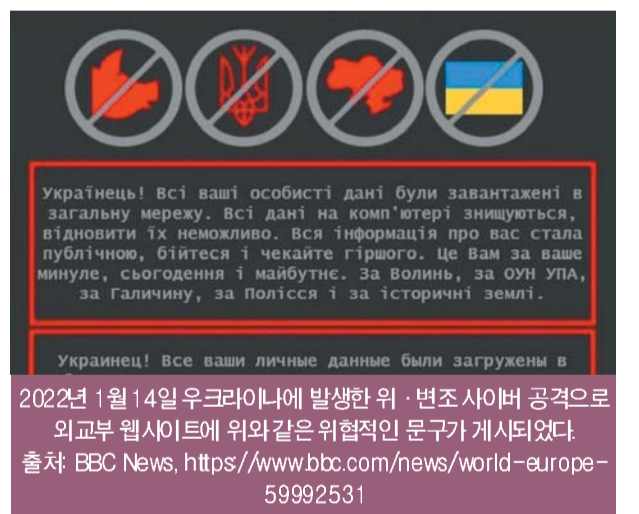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평시 사이버전 전략

그런데 러시아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는 앞서 설명된 물리적 공격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큰 위협에 놓였다. 러시아는 남부에서는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동부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의 돈바스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작 친서방 세력의 거점인 수도 키이우와 서부 지역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터라 러시아의 물리적 공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다. 이때 러시아의 선택은 사이버 수단이였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두 번에 걸쳐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단체가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 발전시설과 전기 공급망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중서부에 사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밤에 수 시간에 걸쳐 난방과 전기,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만약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응급실 전력이 차단되거나 발전시설이 폭발하는 등의 2차 폭력행위가 일어났다면, 단순한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다.

## 사이버 선제공격과 새로운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이버전을 동반한 하이브리드 전쟁이었다. 2022년 러시아는 1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웹사이트 위·변조 공격을 받은 일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의 화면에는 "우크라이나인 이여, 너희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다. 두려워하고, 최악을 기대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사이버 공격과 이러한 문구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가 배후인 사이버 공격에서 '더 최악을 기대하라'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경고였다.



아니나 다를까 2월 중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대상에는 우크라이나 군부의 서버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쟁 전날인 2월 23일 사이버 공간에서 선제타격 공격이 일어난 후 수 시간 뒤인 24일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전쟁 전략은 사이버 선제타격 이후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형태였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의 시스템 공격과 중요 정보 탈취, 그리고 가짜 뉴스 유포와 차단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을 주고 받는 중이다.

2022 트렌드 노트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 이후 ‘여름 휴가’ 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놀이시설보다 프라이빗 풀빌라를 찾는 모습이 관찰된다.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소셜에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첫 확산 시기, 프라이빗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고 있다.

“또 놀러가고 싶다... 힐링받고 싶다... 사람 없는 곳이라 너무 좋았던 곳..?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내년에 또 가고 싶은 곳 #인스타그램 #힐링스타그램 #여유스타그램 #강원도 여행 #강원도휴가 #벌써겨울 #내년도 같이 #3번째같이보내는 #여전히새로움 #무한힐링 #사람없는조용한곳 #너무내스타일 #스파빌라 #노천스파♨️ #프라이빗풀빌라 #풀빌라펜션 #스물다섯살 #직장인의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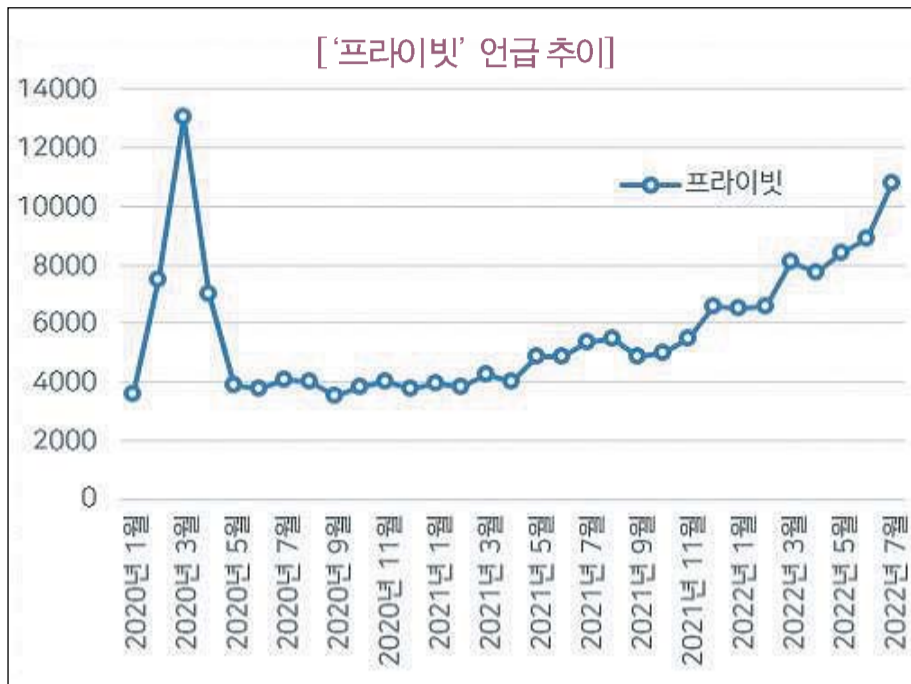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캠핑과 차박이 대표적인 야외 여가로 자리 잡았고, 숲명, 불명 등 자연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소셜 데이터 상에서 뜨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람들이 ‘무리에서 가까운 지인들로 흠뻑 빠져있는 것’, 그리고 ‘나만의 시공간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마다 웨이팅을 해야 하는 맛집, 카페 투어에 지친 사람들은 점차 소수의 인원만을 시간 단위로 받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맛집과 카페를 찾고 있다. 이때문에 유명 맛집은 예약 오픈일에 티켓팅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완전한 휴식을 즐기길 원하고, 제한된 시간일지라도 온전히 그 공간을 점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소셜 상에서 ‘프라이빗’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로 나타났고, 가치에 대한 언어 생성 이후 프

# 여가의 새로운 감성, 고요함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2020.01.01.~2022.07.31.

라이빗 리조트, 프라이빗 파티, 프라이빗 티룸 등 ‘프라이빗’을 강조한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가 트렌드가 되었다.

고요하고 프라이빗한 경험을 중요시 여기면서, 복잡한 생각을 없애고 내면의 평온함을 만들어줄 취미들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쯤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런 감성을 살리며 캠핑이라는 여가 트렌드가 함께하며 등장한 ‘불명’은 자극적이

지 않아 마음이 안정되고, 잡생각을 잊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상징적인 여가 콘텐츠가 되었다.

불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불명의 뒤를 잇는 수많은 ‘〇명’들을 만들어 냈는데, 2014년 ‘불명’이라는 키워드가 소셜 상에 등장한 이후, 2021년에는 총 59개의 ‘〇명’이 나타났다. 불명, 숲명, 물명, 파도명, 하늘명 등 다양한 ‘명’들이 사람들이 고요와 사색의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명은 그림 캠핑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모닥불이나 벽난로가 없더라도 캔들 하나로 내 방에서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는 1시간짜리 벽난로 영상을 볼 수 있기도 하다. 호수나 강, 바다를 바라보는 물명은 작은 어항과 반려 물고기로 대체될 수 있다.

명 때리기와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관심받는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명상이다. 명상을 통한 생각의 비움과 멈춤은 일상 루틴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명이나 명상이라는 트렌드를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명상을 도와주는 제품을 꼭 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다양한 바다 향 브랜드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제품들이 단순히 씻는 용도거나 향이 좋은 것으로 인기를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에 사용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샤워하는 시간만큼, 샤워 후 바다 미스트를 뿌리는 잠깐의 순간만큼은 나를 위한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나의 일상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어떤 시간이 있는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나를 위한 짧은 순간을 만들어보자.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인스타그램, 2017.01.01.~2021.08.31.

# 실패를 공유하자! 페일콘(Failcon)

더 나은 스타트업 도전 환경 만들기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지난 6월, 한 인터넷 기사 제목에서 ‘페일콘(Failcon)’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 대체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옥수수? 원뿔? 등의 다양한 단어가 떠올랐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궁금증에 기사를 눌러 보았다.

‘페일콘(failcon)’이라는 단어는 영어 낱말인 ‘Fail conference’의 줄임말로, 국립국어원에 의해 ‘실패 공유 모임’으로 다듬어졌다고 한다. 이 단어는 창업가와 투자자 등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 요인과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이러한 페일콘은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자리가 개최된 목적은 일반 대중이 부러워할 ‘성공’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본인들이 겪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벤처 투자자들은 1년에 한 번 모여 본인들의 사업 전략이나 아이템 등을 바꾸어 성공하는 데 필요했던 교훈을 얻은 실패에 대해 서로 교류하며 연구한다. 무려 1300개의 특허를 낸 발명의 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인류 전체를 관통시키는 명언을 남겼다. 하나의 발명을 위해 끝없는 실패를 거듭한 그의 말은 페일콘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페일콘은 샌프란시스코를 넘어 프랑스 그르노블, 일본 도쿄,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전세계 10여 개 도시에서도 열리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소수에 의한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에서, 한국도 실패를 공유하는 페일콘 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에서의 페일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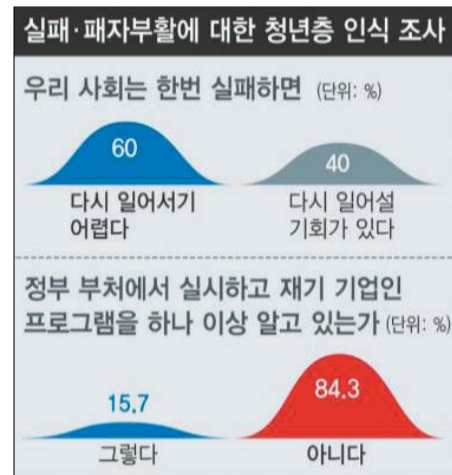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해 개최되는 ‘실패박람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박람회라는 단어에서 규모가 큰 행사가 떠오르게 된다. 그렇기에 ‘한 번의 실패’에 엄격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큰 행사에서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실패담을 꺼내긴 힘들고, 이로 인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자는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열고 있는 ‘재도전의 날’도 하나의 예시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상 효력이 소멸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이것의 취지는 6만 6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물론, 시상식 및 단체 모임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페일콘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도전의 실패로 발생한 경제적인 짐을 털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페일콘의 효과와 재도전 정책의 방향성

한 신문사의 청년층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가 60%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창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적성이 아니라서’가 39.9%, 다음으로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가 33.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페일콘이 열리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실패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산으로 여기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Re-born space라는 한국식 페일콘이 열렸고, 이를 통해 재도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첫 창업의 실패를 거름 삼아 현재 재도전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창업은 실패의 연속에서 배우는 과정이다.”, “첫 실패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 사회의 청년들이 느끼는 실패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스타트업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전적,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실패담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정보 부족 해소 및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페일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단순 스타트업 성공률은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양분 삼아 계속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문화의 긍정적 효과는 유니콘 기업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투자 자본의 차이라는 상관관계도 있겠지만, 미국은 전체 유니콘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에 불과한 것은 단순히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자세, 그리고 재도전의 자세도 유니콘기업의 탄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도 도전의 실패를 터부시하거나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 기초를 바꿔야 한다. 대중적인 페일콘 문화를 활성화하여 도전자들이 도전의 실패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기를 희망한다.



동문(同門)의 소리

#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주는 '태도'



대위(진) 임 도연(3사 54기)  
제25보병사단 정보참모처  
기갑/기계화분석장교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읽고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조금의 쉽고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1. 자발성 :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자발성이란 우선 움직여 행동해보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자신의 수준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나한테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동한 다음의 단계여야 그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의해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 2. 관대함 : 진심으로 애정하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너그러움

어떠한 상태의 사랑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무언가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하루에 상당한 윤곽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라지는 상처를 경험할지언정 가까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랑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더 강한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 3. 정직함 : 인간관계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현대인이 받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선 혼자 잘 설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필자도 내게 좋은 사람이 되어준 누군가에게는 감사함을, 마음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구제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 4. 성실함 : 어떠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한다면 자양분이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신체로 치면 마치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한 경험이 없는 누군가는 진짜 노력해야 할 때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대부분 초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내가 경험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제법 그 일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5. 공정함 : 비교하는 시선이 아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작가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가 차라리 더 낫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시야로는 재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는 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숫자를 부여하여 100 점짜리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ATTITUDE',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다섯 가지의 가치관을 통해 내 하루를 돌아보게 해주는 내용을 통해 많은 공감과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저마다의 환경은 다르지만, 누구나 권태로움에 수동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배우고 배워왔던 가치관을 통해 노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는 좀 더 가치 있는 나의 현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훌륭히 빛내주고 있으신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저의 동기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



### 3사 성우회 간담회 실시

지난 7월 21일, 총동문회관에서 동문 및 학교발전을 위한 3사 성우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문회장 박주왕(19기), 사무총장 서정열(20기), 신임 사무총장 한경수(22기), 성우회 회장 이종학(14기), 양원모(2기), 김주원(3기), 김일생(8기), 신현정(9기), 송완섭(13기), 이순진(14기), 최춘식(15기), 황인권(20기), 김형호(20기) 등 총동문회 임원들을 비롯한 성우회를 대표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동문 및 학교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부분에서 통합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3사 총동문회



▲ 3사 성우회 간담회 행사간 기념사진

### 서정열 前 사무총장(20기) 동문회관 건립기금 전달

지난 7월 29일, 20기 서정열 前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사무총장 업무를 마치며, 회관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다음 신임 사무총장은 한경수(22기) 동문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사 총동문회



▲ 서정열 前 사무총장(좌)과 박주왕 총동문회장(우)의 기념사진

### 신영식 동문(17기), 동문회관 건립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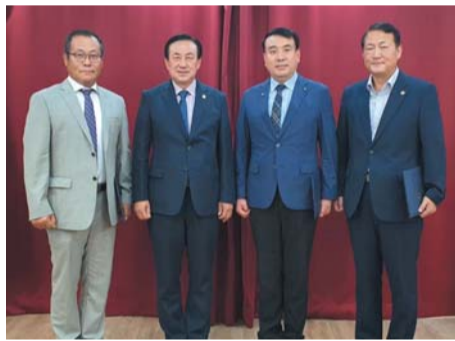
지난 8월 10일, 17기 신영식 동문이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사업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신영식 동문 대신, 17기 동기 회장(김춘섭)을 비롯한 동기회 임원들이 대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3사 총동문회



▲ 17기 동기회장을 비롯한 동기회 임원들의 기금 전달식 기념사진

### 제16대 총동문회 각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



▲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 기념사진(7. 26)  
※대외협력위원장 최창규(19기, 좌), 총괄기획위원장 배후섭(19기, 우측 2번째), 문화체육복지위원장 문용현(21기, 우)

지난 7월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제16대 총동문회 분과별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 행사에서는 총 6개 분과 위원회의 장을 임명하였으며, 임명식 간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위원회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23년부터는 분과별 위원회 예산도 반영되어 위원회별 부위원장, 세부 위원을 선발한 뒤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3사 총동문회



▲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 기념사진(7. 29)  
※모교발전협력위원장 서정열(20기, 좌측 2번째), 안보연구소장 이진성(22기, 우측 3번째), 홍보위원장 박준석(22기, 우측 2번째)

### 58기 사관생도 공수훈련 현장 방문 격려



▲ 총동문회장이 생도들을 격려하는 모습

으로도 늘 배우려는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성장을 거듭하는 정예장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난 8월 18일, 박주왕(19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58기 생도들의 강하 훈련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장(소장 방성대)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특수전 학교 공수훈련 장을 방문하여 격려금과 간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후배 58기 생도들에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앞

3사 총동문회



▲ 특수전학교를 방문한 총동문회 임원들과 학교 주요직위자들의 기념사진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2. 6. 29 ~ '22. 8. 30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7억(2022.8.30 기준)

###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2. 6. 27 ~ '22. 8. 30 기부현황)

김의진(육사#46) 10(8), 김호길(육사#48) 2(65), 두석주(육사#51) 12(214), 황수현(육사#51) 2(14), 이강경(육사#54) 2(8), 이우진(육사#54) 2(76), 정성환(육사#54) 2(2), 조상근(육사#56) 2(14), 변용성(육사#58) 2(15), 이규현(육사#58) 2(109), 이주실(육사#58) 2(94), 김대영(육사#59) 2(182), 문은석(육사#59) 2(88), 김진찬(육사#61) 2(79), 홍희중(육사#61) 2(111), 송태권(육사#63) 4(22), 홍인재(육사#65) 2(44), 김강연(육사#67) 2(8), 김희준(육사#67) 2(8), 문준호(육사#67) 2(55), 조자웅(육사#68) 2(16), 권성진(육사#69) 2(42), 정운혁(육사#78) 6(17), 한덕수(학군#26) 2(121), 남기웅(학군#29) 2(26), 구희근(학군#32) 2(14), 임문택(학군#34) 2(20), 송경재(학군#37) 2(133), 이정훈(학군#38) 1(101), 정우람(학군#46) 2(32), 이세훈(학군#48) 2(37), 홍현신(학군#48) 2(34), 김현식(학군#49) 2(19), 최병찬(학군#52) 2(10), 권영훈(학군#56) 2(2), 최재호(학사#29) 2(138), 이준수(학사#35) 2(121), 임도현(학사#54) 2(117), 구주현(학사#55) 2(40), 임재훈(학사#55) 2(104), 박수영(학사#56) 2(32), 성현애(학사#56) 2(60), 심정현(학사#58) 2(48), 김소현(여군#46) 1(32), 강찬영(군중#61) 2(44), 김형태(간부#22) 2(68), 윤경주(간부#26) 2(28), 최윤정(간사#38) 2(53), 송소연(간사#58) 2(34), 이대희(준위) 2(43), 강필승(군무원) 2(2), 류재은(군무원) 2(206), 안영주(군무원) 2(56), 이수진(군무원) 2(24), 정시연(군무원) 2(35)

### ■ 졸업·재학생도 부모('22. 6. 29 ~ '22. 8. 30 기부현황)

####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 #45 황정태 모) 10(870), 홍근식( #46 홍대희 부) 2(132), 백인숙( #47 ○○○ 모) 2(21), 성동모( #50 성열환 부) 4(230), 안순봉( #51 박상응 모) 20(1,080), 김현미( #52 오치원 모) 3(61), 이영미( #52 황성규 모) 6(334), 정정화( #52 조강현 모) 2(354), 박일식( #53 정필승 모) 4(147), 조정숙( #53 유영빈 모) 4(148), 서완수( #55 서지찬 부) 4(106), 이찬범( #55 이윤성 부) 10(95), 정원섭( #55 정준영 부) 2(130), 송학빈( #56 송용준 부) 2(76), 정희숙( #56 배웅휘 모) 20(1,300), 조재훈( #56 조성진 부) 60(140), 강해영( #57 고원석 모) 2(24), 김경남( #57 김민우 모) 2(23), 김근택( #57 김광진 부) 4(50), 김순말( #57 김준모 모) 4(46), 박경석( #57 박찬환 부) 4(58), 양내석( #57 양철민 부) 20(250), 오유미( #57 김주현 모) 4(54), 이동희( #57 박찬환 모) 6(71), 정재현( #57 정유승 부) 2(48), 지미리아( #57 김대현 모) 15(24)

#### ▶ 재학생(4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구형본, 김한영, 박상수, 박종현, 송봉근, 양미선, 유영환, 진경화, 최결순, 한만근, 황보소호

#### ▶ 재학생(3학년/59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강일, 김남주, 김민순, 김애령, 박선화, 송영복, 윤영미, 임승남, 장연복, 정신, 정영남, 최인, 최형춘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졸업생 기부현황('22. 6. 29 ~ '22. 8. 30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4(176), 남훈조 10(1,429), 이기권 1(557), 임관택 2(92), 최익환 2(92)
- ▶ 2기 윤경혁 10(565)
- ▶ 3기 김연석 10(596), 김태성 10(160)
- ▶ 4기 임성기 10(110)
- ▶ 9기 권영호 10(480), 김현기 9(1,220), 윤지환 6(183), 최병학 10(1,295)
- ▶ 13기 문성목 20(360)
- ▶ 14기 김길영 2(108), 김중환 3(69), 안호 30(2070)
- ▶ 15기 김성연 2(537)
- ▶ 16기 나상웅 100(240), 심재민 2(21), 원홍규 6(348), 유영집 3(50), 윤영식 20(320), 이영호 2(139), 이종우 2(172), 황병태 2(320)

- ▶ 18기 구연덕 3(142), 금용백 6(606), 이기환 2(37)
- ▶ 19기 김익수 4(207), 이경희 2(185), 이종형 6(289), 이창호 6(612), 임영갑 10(210), 홍성식 2(207)
- ▶ 20기 박권순 4(172), 서정열 2(505), 편철권 200(2700)
- ▶ 21기 신철수 4(1,190)
- ▶ 22기 권순태 2(64), 김면수 10(130), 정경호 2(57), 조태환 4(163), 천병규 12(472), 홍성덕 10(231)
- ▶ 23기 김태일 2(242), 신영찬 2(83), 오승욱 4(288), 최승환 2(19), 허강수 4(303)
- ▶ 24기 광종만 4(76), 권금백 4(308), 권오봉 2(226), 김도협 2(244), 김지영 12(1002), 김성래 4(56), 남용구 4(310), 모경원 2(239), 박세철 2(82), 방성대 2(123), 이문휘 2(104), 정정현 2(203)
- ▶ 25기 김남용 2(146), 문봉성 2(164), 이은전 10(73), 장광선 6(514), 장무수 2(61), 전희준 2(317), 조재희 2(135), 홍은표 2(210)
- ▶ 26기 고창준 10(332), 신태영 1(105), 유근환 2(47), 이덕우 2(139), 이완주 5(154), 이태인 4(86), 임우영 2(256), 장용빈 2(135)
- ▶ 27기 김관수 6(115), 김덕중 2(80), 김성오 4(54), 김용범 4(42), 김지덕 2(34), 김호복 8(305), 석수열 2(57), 우성제 3(20), 원희문 10(305), 이희순 3(252), 정필균 2(56)
- ▶ 28기 권승영 1(31), 권양철 2(120), 김진길 2(92), 김창현 1(175), 박용섭 4(197), 서청수 2(184), 유정일 2(48), 윤석찬 2(153)
- ▶ 29기 김강식 2(257), 김광석 4(26), 김태영 4(54), 박성훈 2(165), 박태용 2(144), 이상일 2(200), 이의규 2(127), 임국기 20(130), 임성호 2(176), 최인섭 2(138), 현대식 2(162)
- ▶ 30기 김종권 1(95), 김홍빈 5(10), 김효성 2(56), 남진오 2(67), 이병길 2(31), 이진 2(161), 임상달 2(131), 주경호 3(126), 홍성범 2(49), 함민호 2(112)
- ▶ 31기 권동호 4(84), 김민식 4(122), 김영태 2(193), 김태희 2(21), 김희철 2(238), 염항수 2(148), 이재춘 2(222), 이훈복 2(60), 최대집 2(58), 전경인 2(45)
- ▶ 32기 권관덕 4(336), 김화용 2(125), 사인우 2(147), 안태환 4(118)
- ▶ 33기 권해욱 4(44), 김상선 4(172), 김성근 4(168), 김현규 4(443), 남석진 2(149), 노일 6(200), 안경일 2(246), 안준영 6(155), 이정표 6(113), 조재복 2(122), 홍종원 3(43)
- ▶ 34기 강훈 2(9), 김기수 2(192), 김운성 2(57), 김홍식 6(471), 이무이 2(416), 임창훈 2(92), 정승필 1(12), 정용민 11(217), 정창근 2(118), 정춘황 2(68), 조수창 2(193), 홍영기 2(37)
- ▶ 35기 김경철 2(21), 김수열 2(81), 박병준 6(344), 박상현 2(40), 박시근 2(195), 송명성 4(84), 이문희 2(161), 이호순 6(46), 임창규 2(119), 장춘삼 2(158), 전성광 2(50), 정병삼 2(161), 정영석 2(117), 정호준 4(118), 허중수 2(37), 한중훈 4(391)
- ▶ 36기 김도희 4(78), 김동혁 2(101), 김명규 1(60), 김현 2(140), 안경무 6(304), 양현승 2(217), 이광희 2(160), 이규호 2(127), 임종수 2(82), 장세호 2(213), 정우철 2(148), 조동권 2(229), 진연수 2(173)
- ▶ 37기 강성봉 2(179), 김양훈 6(273), 김충기 4(171), 김홍년 2(244),

- 노진철 2(158), 문장권 2(32), 송석봉 4(175), 송용섭 4(309), 엄태환 2(2), 옥원호 2(144), 이관모 2(150), 이용구 4(84), 이원형 4(299), 이희석 2(129), 임원철 2(165), 전성진 2(139), 정우진 2(82), 정태욱 6(138), 정희철 2(138), 최정호 2(50), 최하용 6(93), 함성규 2(115)
- ▶ 38기 김대현 2(35), 모올하 2(238), 문정민 2(128), 문현성 2(241), 서성걸 2(85), 신상운 2(139), 이경식 2(189), 이정용 4(252), 위재익 4(97), 정한욱 2(220), 함기훈 2(96)
- ▶ 39기 권웅 1(55), 김의진 2(137), 김인경 2(95), 김지훈 4(111), 박철균 2(131), 송진근 2(130), 송창현 4(135), 심용운 2(100), 양운차 2(78), 이대화 2(223), 이웅렬 2(119), 이준석 2(87), 장동준 4(85), 정대겸 2(38), 최현철 2(284)
- ▶ 40기 구자운 4(194), 김백린 2(210), 김영우 6(280), 김우형 4(30), 김종욱 2(51), 김형수 2(187), 남태근 2(46), 박상규 2(64), 박진하 2(103), 송석준 2(148), 유형선 2(94), 이호연 10(748), 이훈석 2(70), 최창규 2(106), 하성남 3(12)
- ▶ 41기 권영철 2(77), 김석진 10(298), 박한지 2(197), 방현욱 2(87), 손영민 2(171), 손종득 2(105), 임성은 4(141), 전종상 10(257), 정기재 2(197), 최민규 2(133), 최인혁 2(81), 최지능 2(220)
- ▶ 42기 강구한 2(35), 강재석 2(115), 강정희 2(164), 공광석 2(70), 김동우 2(138), 김동진 2(107), 김용민 2(74), 박용준 6(64), 박효찬 2(164), 손병현 2(182), 윤희철 2(158), 이광호 2(81), 이기욱 2(105), 이승은 2(164), 이용학 2(167), 정만기 2(157)
- ▶ 43기 강민식 4(262), 김용태 2(103), 김인중 2(248), 노창래 2(55), 박희영 2(71), 배동직 6(172), 백두산 4(258), 엄태섭 2(56), 이남익 1(80), 이도훈 2(139), 이상민 2(158), 이용희 4(245), 이준맹 2(92), 이호선 2(94), 최진호 4(107), 허광석 1(103)
- ▶ 44기 김대는 2(115), 김승돈 4(18), 김인찬 2(56), 권용혁 4(52), 서동준 2(150), 엄태천 2(103), 오승우 13(73), 이민재 2(142), 이영민 2(151), 이희성 2(163), 최재근 2(82), 한상호 5(25), 황재혁 2(41)
- ▶ 45기 권기호 2(145), 김동호 2(152), 김성수 4(127), 박영일 2(148), 서석관 6(160), 신유철 2(138), 이민권 2(93), 이진희 4(150), 정재현 2(149), 정진우 2(150), 채희용 2(128), 최충수 2(151), 황승세 2(149)
- ▶ 46기 강승웅 4(278), 김대영 2(51), 김명철 2(137), 김명렬 2(137), 김정호 2(254), 김진용 2(171), 박수만 2(43), 백인정 2(137), 송원상 4(224), 오기리 2(135), 이상윤 2(137), 이신화 3(24), 이수원 2(140), 이진철 2(128), 정종택 6(413), 조광연 2(75), 조수빈 2(99), 차승우 2(99), 표상열 2(137), 한영인 2(137), 홍한표 2(128), 황순창 2(137)
- ▶ 47~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연제항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 58기 김성혁 1(1), 김태성 5(5), 황영호 6(51) ▶ 59기 이용훈 10(25)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입금 시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9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기부영수증(세금정산용) 발급은 홈페이지 영수증발급 하기로 본인 직접발급 하실 수 있으며 우편전자발급 문의사항은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 자동이체를 이용한 신규 신청 또는 기간 연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어플에서 신청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충성대 어플을 이용한 자동이체시 매월 수수료가 발생)

※ 기부자 정보 수정 희망시에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 학교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재단사무국을 이전하였습니다.  
**학교 분층(에서) → 문무관 1층 B-134호(으로)**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